

사상의학적 체질분류에 따른 유병상태

— 일개 종합건강진센타에서 종합건강진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

소재용, 최현림, 최찬영, 김병성, 원장원, 이진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최근 경제적 성장으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건강검진이 보편화되고 있고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원에서는 양·한방이 협진하여 건강검진을 시행 중이어서, 한의학적 이론인 사상의학적 체질분류와 질환의 유병률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동서의학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건강진단을 위한 선별검사 선정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2002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K 대학병원 종합 건강진센타에 내원한 60세 이상 노인 329명을 대상으로 한방진찰과 양방진찰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각 환자의 체질과 상병을 조사한 후, 각 체질별 질병 유병률을 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체질진단 결과 태음인 151명(45.9%), 소양인 116명(35.2%), 소음인 62명(18.9%), 태양인 0명(0%)으로 태음인이 가장 많았다. 태음인군에서는 비만, 고혈압, 지방간, 당뇨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소양인군과 소음인군에서는 유의한 질환을 찾을 수 없었다.

결론: 각 체질군에 따라 유병률에는 태음인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태음인에서 유의한 질환들은 비만도로도 설명할 수 있어 사상의학에 근거를 둔 체질분류가 과학적 근거를 갖는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단어: 건강검진, 노인, 사상의학, 체질, 유병률